

신안 2022년 문화도시 지정 힘 모은다

‘1도 1뮤지엄’ 등 아트 프로젝트 가시화 주목
상반기 문체부 신청, 내년 예비도시 선정 총력

신안군이 오는 2022년 문화도시 지정
을 위해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민선 7기 군정을
‘반드시 오고 싶은 곳, 누구나 살고 싶은
섬, 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조성
에 초점을 맞추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섬
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하나의 섬에 하나의 미술관과 박
물관을 조성하는 ‘1도 1뮤지엄’ 아트 프
로젝트를 속속 가시화 시키면서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섬이 지닌 독특한 매력
을 앞세워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선언하
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군청 공연장에서
박우량 군수와 국·과장들을 비롯해, 문화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도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의 전영철 창업센터문화장이 강사
로 나서 원주시의 노력과 사례가 발표됐
다. 이어 전국필 현 문화도시 심의위원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의 절차와 준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안군은 기본계획 용역과 거버넌스 구
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 상반기 중
문화도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박우량 군수는 “100년 대계의 첫 걸음
을 내딛는다는 생각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며 “1도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
를 완성해 문화가 꽃피는 신안을 만들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등 군의



신안군이 최근 군청 공연장에서 ‘문화도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명회를 여는 등 오는 2022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브랜드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어 “내년에 예비도시 선정
이후 오는 2022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전 공직자와 군민이 힘을 모아가
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

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일컫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고 30개
지자체를 선정해 5년간 200억원의 사업
비로 테마벨트, 문화전문인력 양성 등 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휴먼웨어 사업을
추진한다. /신안=이주열 기자

“꿈·희망 함께하는 체육회 만들 것”

영암 초대 민선체육회장에 이봉영씨 당선

영암군 초대 민선 체육회장에 이봉영
전 영암군 축구협회장이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지난 9일 선거인 102명 중
100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6표를 얻어
각각 30표와 24표에 그친 박홍식·강대
선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 당선인은 영암 체육재정 확충, 각종
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견인, 체육지도자
채우개신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선인은 “영암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주민 친화적인 영암군체육회로
만들겠다”며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체
육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광주매일신문 특집부 국장
으로 재임 중이며, 영암군 스포츠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진도 내년 국비확보 행정력 집중

총 35건 5,130억 목표

진도군이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10일 5,130억원의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2021년 국고지원 건의
사업 보고회를 열었다.

국고지원 건의사업은 진도 국제항 개발
사업 등 총 35건, 5,130억원이다.

해양수산부(5건) 4,332억원, 농림축
산식품부(8건) 814억원, 문화체육관광

부(4건) 67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은 ▲진도 국제항 개발 ▲해
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운림명승지구 관
광 활성화 ▲진도군 배수개선 사업 등이
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정부 주요 정책,
민선 7기 공약, 진도 미래 발전을 위한 장
기 프로젝트인 진도 비전 2030에 맞는 신
규사업 추진으로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밀
착형 생활 SOC사업 등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관광·수산식품·신재생에너지 육성 총력”

김종식 목포시장 시정연설... “의대 유치 등 주력”

김종식 목포시장이 관광·수산식품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3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종식 시장은 지난 10일 제353회 목
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는 목포의 매력을
관광상품화하고 강점을 전략산업화하
는데 전력 질주한 해였다”며 “이를 통해
목포경제의 대등보가 될 3대 전략산업
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이어 “올해는 지난해 성과
를 낸 정책들은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보완
하고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1천만 관광도시 ▲
해상풍력과 수산식품산업의 미래 신성
장전략산업 ▲미래성장동력 인프라
확충 ▲슬로시티 완성 ▲문화예술도시
면모 증진 ▲일자리가 있는 복지도시
등 6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목포시는 세계인이 찾는 1천만 관광
도시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인 관광거점
도시 지정에 주력하는 한편 고하도 만
남의 생태공원, 해안테크, 대반동 스카
이워크 포토존, 해변맛길 30리, 삼학도
천년의 숲 조성, 대형 숙박시설 추가 유
치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해상풍력으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
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4차 항만기
본계획에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배후단지 조성을 포함시키는데 행정
력을 집중한다.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대표사업인 수산식품수
출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정부 예산이
확보된 만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계
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는 국립심발전연구진흥원 유치, 목포대
학교 의과대학 설립, 해양경찰 서부정
비장 구축사업, 종합경기장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목포시 제공

슬로시티는 도시재생과 섬 개발을 통
해 완성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대
역사문화공간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근대역사2관 리뉴얼, 1897개항문화거
리 청춘로 구간 디자인 간판 설치, 전선
지중화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복지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양산단 세일즈행정과 청년

·일자리통합센터 운영, 목포사랑상품
권 200억원 발행, 독거노인 보호사업
권역별 통합 등에 주력한다.

김 시장은 “올해도 목포는 기회와 위
기가 공존한다”며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넓게 교류하고, 더 깊게 소통하며 희
망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가 오는 22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 소통하는 ‘행복 정책토크’를 진행한다. /완도군 제공

신우철 완도군수 ‘행복 정책토크’ 눈길

12개 읍·면 순회...지역 현안해결 등 모색

신우철 완도군수가 군민과 소통을 강화
하고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 정
책토크’를 시작했다.

신 군수는 지난 9일 완도읍도와 군외면을
시작으로 22일까지 “2020년 군민 행복
정책토크”를 한다.

12개 읍·면을 순회하는 정책토크는
13일 금일과 금당, 15일은 신지면, 20일
은 청산면과 소안면, 21일은 생일면과 약
산면, 22일에는 고금면에서 진행된다.

군민 행복 정책토크는 지난해 군정 성

과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하고 군
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군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
다.

신 군수는 올해 군정 주요 정책 보고에
서 “지난해 성과와 해양치유산업, 해양시
장개척,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완
도수목원을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하
는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
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겠
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영암 공모사업 국비확보 역량강화 교육

영암군은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조장
완 선임연구위원을 초빙, 군 산하 공직
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국비
확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정부의 공모사업 증가 추세와
민선 7기 군정방향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공모사업은 지

역 성장 동력인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
는데 꼭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민
선 7기 군정 방향과 연계해 국도비 확보
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민선 7기 총 57개 공모사업
에서 국도비 1,102억을 확보했고, 올해
중앙부처 및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육군 31사단 김호규대대, 주거환경개선 봉사

육군 31사단 김호규대대(대대장
조은상)는 최근 저장강박증을 가진 목
포의 저소득 독거노인 집을 찾아 주거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유달동 고지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70)는 각종 생활용품과 쓰레기를 집
안 가득 쌓아 놓은 채 생활해 심한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목포시의 요청을 받은 김호규대대는
곧바로 간부 20여명이 참여해 쓰레기
수거·처리 및 방역 활동을 펼쳐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조은상 대대장은 “봉사활동은 지역
사회에 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함께하
는 김호규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진도 희망나눔 캠페인 2억8천만원 성금모금

진도군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추진, 지난해 대비 15%가 향상된 2억
8,000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오는 31일까
지 73일 동안 진행되는 희망 2020 나
눔 캠페인은 군민, 기관단체, 기업 등이 자
발적으로 참여 현금 1억8,000만원과
1억원의 현물을 모금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군민 모두가 하

나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실을 맺었다”며 “남은 모금 기간에도
건강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많은 군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참여 희망자
는 이달 말까지 전남공동모금회 또는
진도군청 주민복지과(540-3166)에 접
수 가능하다. /진도=박병호 기자